광주전남병무청, 세광학교 사회복무요원 격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9일 광주시 서구 시 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세광학교를 방문해 학 교장과 차담을 갖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만나 격려했다. 〈사진〉

병무청은 임홍근 광주세광학교장과의 환담 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감 사를 표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정적인 근무 여건 속에서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특수학 교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헌신적으로 돌 보는 소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집해 제 되는 날까지 건강하고 성실하게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동신대, 나주 소방서와 반려동물 심폐소생 교육



동신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최근 나주 소방 서와 함께 '반려동물 안전교육'을 주제로 학습 나눔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9일 밝 〈사진〉 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이 번 프로그램에서 응급구조학과 봉사동아리 '응 급슬쩍'학생들은 한전에너지공과대학, 농식품

기술평가원, 빛나라어린이집, 전남경찰청 기동 대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려동 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응급 상황 대처법, 반려동 물 심폐소생술, 반려동물 기초 안전 지식 등 실 제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해 큰 호 응을 얻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빙모상 조의금 1000만원 기탁



윤진호〈사진〉전남도기획조정실장이 빙모상 조의금 1000만원을 인재육성 장 학금으로 기탁했다.

9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 면 윤 실장은 조문한 분들에 대한 감사 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장 학금으로 기탁했다.

윤 실장은 "장학금이 전남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는 뜻을 전했다. 앞서, 윤 실장은 지난달 17일에도 빙모상 조의 금 1000만원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인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고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남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이달의 새농민상 부부 3쌍 선정



농협전남본부가 선정하는 7월 '이달의 새농 민상'수상자로 광양시 오민태·김옥둘레씨 부 부, 곡성군 정상봉·채경순씨,해남군 이웅·김미 란씨 부부가 선정됐다.

오민태씨 부부는 1만9800㎡(6000평)가 넘 는 하우스에서 고품질 양상추 생산과 양상추 브랜드화를 선도한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있 다. 정상봉씨 부부는 지역 내 순환농법으로 친 환경 벼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온 점 등을 평가받았다.

이웅씨 부부는 2018년 국산 참기름, 들기름 가공공장(이웅식품)을 준공한 뒤 참깨·들깨 작 목반을 조성해 생산에서 가공 판매시스템 구축 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시핸드볼협회, 치우치과 수완점과 협약

광주시핸드볼협회 (회장여명현)는7일 치우치과의원광주수 완점(대표원장 박정 호)과 협력의료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선 수들의 외상을 예방 하기 위한 치아 보호 마우스피스 협찬과 임플란트 및 치료비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하다.

특히 핸드볼 선수 뿐 아니라 초·중·고 엘리트 선수 및 가족과 교직원 등 광주시핸드볼협회와 연관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혜택을 확대했다.



한편, 치우치과 수완점은 '자연치아 보존과 진심 어린 치료'를 원칙으로 삼아, 광주시 광산 구 수완지구에서 13년째 지역민과 함께하고 있 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국립목포대, 제주학술대회 ICCT서 전공융합 논문 부문 최우수상 수상



국립목포대학교는 최근 (사)한국융합학회가 주최한 '제15 회 제주국제학술대회 ICCT 2025 및 제8회 캡스톤디자인대학 생 경진대회'에서 전공융합 논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립목포대 경영학부가 제출한 수상작의 주제는 '지역 로컬 푸드 유통센터의 청년층 고객 확보 전략'으로, MZ세대(20~ 30대) 청년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실증적 분석과 전략 제안 이 핵심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MBC 뉴스특보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올여름은 국내로! 내고향 스페셜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꾸러기 탐구생활
11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사랑의 가족(재)	10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재)	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00 보물지도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재) 55 키즈 펫 도감(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안녕 자두야 6
1	0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원 KBS 파노라마(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여왕의 집 스페셜	2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사피엔스 클럽(재)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우리 집 금송아지(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시간여행자 루크(재)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보물지도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고향이 보인다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여왕의 집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시장이 좋다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수목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여름특선드라마 디어 엠	50 MBC 뉴스 25	50 꿀잼남도 스페셜
12	00 KBS 중계석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리얼 라이브	20 도시락 스페셜(재)

05:00 왕초보영어

05:30 클래스 e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7:45 레인보우 버블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5:50 한국기행

0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07:30 엄마까투리

08:00 딩동댕 딩동댕

0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9:05 메탈카드봇S 강철의 귀환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

09:4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EBS1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

17:00 페파피그

17:10 엄마 까투리(재)

17:25 레인보우 버블젬(재) 17:40 타타와 쿠마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재)

18:10 EBS 뉴스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9:20 고향민국

19:50 PD로그

20:40 세계테마기행 (이토록 푸른, 타히티

고갱이 반한 이유, 모레아〉

21:35 한국기행

〈새콤달콤 냉국기행 4부

치열하게 뜨겁게〉

21:55 왔다! 내 손주 22:45 다큐멘터리 K

2 010-9790-8237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4:40 클래스 e(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음 6월 16일 庚辰)



子

36년생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소신껏 행해도 된다. 48년 생 진행에 탄력이 붙는 시세에 놓여 있다. 60년생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태이다. 72년생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84년생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96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 행운의 숫자: 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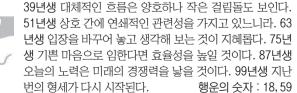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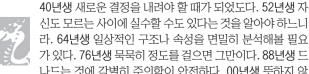
37년생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판도를 좌우하는 요체가 됨 을 명심하라. 49년생 속도를 늦추고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 가 필요하다. 61년생 반드시 준비하여야만 국면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73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리하다. 85년생 독창성이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 97 년생 현태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04,60



卯

38년생 들고 나는 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시점이다. 50년 생 주어진 국량에 적절해야만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 다. 62년생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형성된 다. 74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어느 한 순간에 기괴한 일을 당 할 수도 있겠다. 86년생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 98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47,87





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 라. 64년생 일상적인 구조나 속성을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 가 있다. 76년생 묵묵히 정도를 걸으면 그만이다. 88년생 드 나드는 것에 각별히 주의함이 안전하다. 00년생 뜻하지 않 은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01,70



辰

41년생 원인은 따로 있으니 세밀하게 찾아본 후에 대처하 라. 53년생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여 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낫다. 65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77년생 이치를 터득해야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89년생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백번 낫다. 01년생 효과가 커진다. 행운의 숫자: 09,91



42년생 주체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 는다. 54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66년생 친분을 가장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78년생 환경이 바뀌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양태이 다. 90년생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 할 때다. 02년생 참으 로 귀함과 접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0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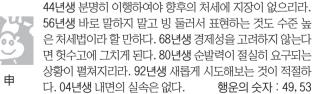
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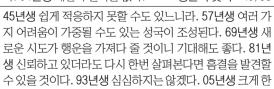
酉

戌

보여 줘버려라.

43년생 일단 상대의 말을 다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 이다. 55년생 차분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실행하느냐의 여 부가 관건이다. 67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것이 다. 79년생 길흉이 교차하니 맹점이 없는지 살펴보자. 91년 생 느낌으로 판단하다가는 실수하리라. 03년생 단처가 보이 니 확실히 개선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4, 72





숨 쉴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06,68 46년생 한시도 쉴 수 없는 숨찬 하루가 될 것이다. 58년생 현명하게 처신해야 고민에서 벗어 날 수 있다. 70년생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82년생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94년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스처와 채널이 절실히 필요하다. 06년생 제대로

행운의 숫자: 48,54



47년생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느니라. 59년생 부 실함은 단순한 속단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71년생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일단 수용하고 보면 괜찮을 것이다. 83년 생 어떠한 형국이 되든지 간에 시종일관 단일하게 대하는 것 이 능률적이다. 95년생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07년생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 행운의 숫자: 31,85